

신안철교 공사에 광주역 멈춤...“시민 불편 안돼”

공사 기간·사업비 부담 적은 ‘광주선 차단’ 유력
열차 하루 22대·시민 1000명 이동권 영향 불가피

광주 도심 철도의 상징이자 하루 1000명 안팎이 이용하는 광주역 열차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북구 문흥동 서방천 수해 예방을 위한 신안철교 재가설 과정에서 광주선 열차 운행을 장기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등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신안철교 재가설 공사 기간 동안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광주역 열차 운행은 수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광주역에는 무궁화호와 ITX-새마을호 등 하루 평균 22대의 일반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은 약 1000명

수준이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광주역 특성상 고령층과 장거리 일반열차 이용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철교 재가설 논의는 반복된 침수 피해가 계기가 됐다. 1969년 준공된 신안철교는 교각 간 거리와 여유고가 부족해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이후 북구 서방천 일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사 기간 동안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광주역 열차 운행은 수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광주역에는 무궁화호와 ITX-새마을호 등 하루 평균 22대의 일반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은 약 1000명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10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 앞에서 신안철교 재가설에 따른 광주역 열차 운행 전면중단 계획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제는 공사 방식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임시선로를 활용해 열차 운행을 유지하는 방안 △운행선을 유지한 채 개량하는 방안 △광주선을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복수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공사 기간과 사업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면 차단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운행 유지 방안의 경우 하천기 본계획상 요구되는 교량 경간장과 여유고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단은 지난 1월30일 광주선 전면 차단을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 복수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공사 기간과 사업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면 차단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는 “임시 우회선로 설치를 통해 열차 운행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비용과 기간만을 이유로 광주선 전면 차단을 선택하는 것은 시민 교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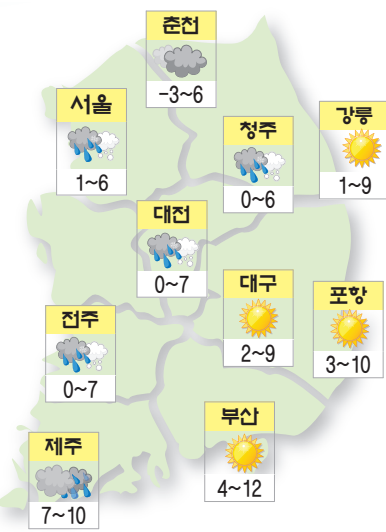
김동구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은 “한국 철도는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국민의 삶을 이어왔고, 주요 선로 개량 공사도 운행을 유지하며 진행됐다”며 “1922년 영업을 시작한 광주역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지만 KTX와 서벌열차가 사라진 데 이어 장기간 운행 중단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광주역 운행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이용객 불편은 물론 택시 수요 증가, 인근 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이날 광주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선 전면 차단 방안 철회와 임시선로 설치 검토를 공식 촉구했다.

임영진·송태영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23	달출	02:40
예보	18:11	달입	12:12



광주	☁	1~8
목포	☁	2~7
여수	☀	3~9
순천	☁	2~9
구례	☁	0~8
광주	☀	1~8
진남	☀	1~10
진도	☁	2~8

목포	미물(고)	08:42 / 20:23
여수	샘물(저)	00:56 / 15:15
목포	미물(고)	03:59 / 15:20
여수	샘물(저)	10:41 / 21:51

광주·전남 지자체 현혈자 수 ‘전국 2위’

지역 혈액보유량 ‘두꺼푼 이벤트’ 이후 안정세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단체현혈 참여 인원이 전국 15개 권역 중 2위를 기록했다.

1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현혈자 수는 대전·세종·충남이 88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5909명, 서울 동부 5200명, 강원 4610명, 경남 3610명, 경기 3460명 순이었다.

2024년 지자체 현혈자 수는 대전·세종·충남이 92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6107명, 서울 동부 5328명, 강원 3800명, 경남 3266명, 경기 2964명 순이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지난해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단체현혈자 수를 보면 부산시 520명, 인천시 489명, 광주시 320명, 대전시 298명, 충남도 326명, 경북도 313명, 전남도 236명 순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전국 현혈자 수 상위 50위권에는 광주·전남 지자체 13곳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혈액보유량은 5.5일분(혈액형별 0형 6.0일분, A형 4.3일분, B형 7.0일분, AB형 5.5일분)으로, 혈액 재고가 지난 6일 실시한 두꺼푼 2차 증정 이벤트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구민 정보화 교실 10일 광주 동구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열린 '구민 정보화 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이 강사로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정보화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중심 과정들로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폰 활용, 이미지·동영상 편집, 다양한 어플 활용, 원도우11·인터넷 활용, 엑셀2021·파워포인트2021 등 실생활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화교협회 임원진,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

토지 매입 과정에서 협회 자금 3억여원 빼돌려

광주화교협회 대표이사과 사내이사가 토지·건물 매입 과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재판장은 광주화교협회 대표이사 A씨(72)와 협회 총무이사 B씨(79)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협회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금 3억173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광주 서구 농성동의 토지와 건물을 16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별도 약정을 통해 11억400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건물 매도인에게 중도금 5억원을 송금한 뒤 협회 계좌에서 1억원 권 수표 7장과 1000만원권 수표 20장 등 총 9억원 상당을 인출했다. 이후 협회 계좌를 통해 2월12일 건물 매도인에게 잔금

5억5265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들은 건물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했음에도 1000만원권 수표 20장 등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협회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이날 열린 재판에서 협회 임원진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와 자금 사용 경위, 회사 내부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서구 매월~남구 효천 도로 전면 개통

광주 서구 매월동 전평제와 남구 효천지구를 잇는 ‘매월~효천 도로’가 전면 개통됐다.

10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개통된 도로는 연장 1.2km, 폭 18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매월유동단지과 풍암(C, 효천지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그동안 광주김치타운 인근을 우회해야 했던 시민들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명절 귀성·귀경길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월~효천 도로는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을 맡아 약

10년 만에 완공됐으며, 사후 관리는 서구가 담당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개통을 앞둔 지난 9일 현장을 방문해 도로 안전시설과 교통환경을 점검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서구는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해당 구간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계절 안전한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자치구 창업센터 “성장·지역 정착 돕는다”

동구창업센터·서구스타트업센터 ‘든든한 조력자’
상권 분석 등 밀착 지원... 공간·교육 무상 제공도

광주 각 자치구가 운영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청년 창업자들의 성장과 지역 정착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자치구 최초로 문을 연 동구청창업센터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의 인큐베이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센터는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입

주 기업을 선발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유치 스피치와 마케팅 강의, 상권 분석, 경영자금 연계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 3~4층에는 12개 마을공방과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개소 이후 6년여 동안 졸업기업 36개사를 포함해 총 48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입주기업들

은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기업 간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입주기업인 ㈜벌우컴퍼니는 지난 2024년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현재 벌우컴퍼니는 ‘가볍게 나서는 일상 밖의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으로 피크닉·아웃도어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여행용품과 워터 피크닉 용품으로 제품군 확장과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 입주한 ㈜미나페이는 화장품 브랜드 ‘아리라크’를

문점에 미국과 캐나다, 중국,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동구와 동구청창업지원센터는 향후 AI 헬스케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센터를 올해 금남로4가 ‘AI헬스케어 동구타워’로 이전할 계획이다.

조창현 동구청창업지원센터장은 “많은 기업이 동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저렴한 임대료와 멘토링,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역시 청년 창업 기반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서구는 광주교통공사와 협력해 지난 2021년 5월부터 창업문화 확산에 나선 결과, 지금까지 총 36개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현재 9개 기업이 농성역에 위치한 서구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해 있다.

농성역에 자리한 서구스타트업센터는 기업 맞춤형 멘토링과 독립·공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창업자들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북카페와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AI 면접 상담실, 회의실과 미팅룸 등 다양한 공용시설도 갖췄다. 입주기업은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전기사용료 등 일반 부담하며, 1년 입주 후 성과 평가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인 모들랩은 2022년부터 2년 간 센터에 입주하며 ‘탈취형 전구’ 개발에

성공했고, 서구와 광주교통공사와 협의해 농성역 역사 내 화장실 등 시설 전구를 무상 교체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 또 지난 1월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 양산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입주한 아인컨설팅은 센터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 기법 특강을 바탕으로, 서구청이 주관한 지역 일자리주도형 사업에 선정돼 학교와 기업 위탁교육을 수행했다.

서구스타트업센터 관계자는 “입주기업협의회 운영과 제품 홍보,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자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 창업이 지역 일자리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